

## 어느 教授의 獨白

尹 汝 德

(曉星女大 社會學科)

산업사회는 풍요로운 물질과 다원화된 사회라는 것이 그 특징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풍요로운 물질이 생산관계의 합리화에서 창출된다면, 다원화는 그 생산관계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현대 사회는 그 사회적 발전을 위한 산업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들의 사고 양식도 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상호적 관계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다.

'60년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심각하리 만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역시 가치관의 현격한 변화이다. 산업화를 통한 사회변동의 주체가 밑으로부터의 民意에 의한 자율성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나, 어느 면에서는 전부가 계몽주의적 지배의식으로 유도되는 타율성으로 말미암아 자연법적 인간의 존엄성이 유리되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율적 문화와 약삭빠른 가치관의 변화가 은연중에 우리 생활에 침투되어 왔다. 이러한 것이 극에 달하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를 낳게 하며 물질에 대한 욕망과 물질에 대해 필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서 사회적 가치관이 物神崇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전문적 기능의 요구에 따라 그 전문성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신노동을 하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 직업적 분포가 있지만 대학교수만큼 그 어려움이 극에 달한 분야도 적을

것이다. 사실상 대학교수의 본연의 자세는 연구와 그 연구에 따른 가르침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통념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도 성인군자와 같은 도덕성과 윤리까지 요구하게 된다. 사실 연구도 자유스럽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그 창의력의 발휘가 가능한 것이고, 평가의 공정성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배우겠다는 학생들의 입장이나 그 뜻 또한 요사이 같은 분위기에서는 차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실정이다. 지식을 음미하면서 실천적 과제로서 보여 줄 수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에 대한 요구의 한편으로 대학교수 그 자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 불완전하기 이를 데 없는 보통사람이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교수는 그 정신적 부담감과 전문성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 갈등을 느끼게 된다.

요사이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학생소요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 내용이 비록 학내 문제이거나 학외 문제이거나 근본적 핵심은 이른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가 賤民 자본주의 정신에서가 아닌, 합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출발하지 못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보이면서,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서 학생을 중심으로 집단행동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현실 속에서 대학교수의 역할만큼 난처한 입장도 드물다. 학문을 숭상하고 知行一體를 부르짖으며 사회의 불의나 부조리를 간파하지 못한 옛 시

절의 선비들이나 韓末에 보여 준 의병운동과 같은 정신사적 유산은 오늘날의 많은 지성인들 중에서 특히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인식 인지도도 모른다. 이러한 志士型의 맥이 있는가 하던 철저히 회색적 지성인으로 간주하는 오해 또한 상당하리라 본다. 자신이 연구하고 이해한 데서 얻어진 진리를 가르치고 전수시켜 주는 학생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고 현실과 유리된 공염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사회변동 과정이 합리적 민주주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합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기록된적 파위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고 인식이 극단화되었다. 협상과 타협 없이 합일의 발전을 꾀할 수 없는 일방통행적 획일화와 경직화가 필연적으로 오늘날의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뜻이나 방법에 있어서 극단의 흑백논리만 강경하게 부각되는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던 정의의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회주의자나 회색분자로 낙인을 찍어 버린다. 마찬가지로 학생이 보는 대학교수상도 민주교수와 어용교수 등으로 쉽고 간단하게 도식화해 버린다.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교수이든 어용교수이든간에 교원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또한 그렇게 범주화시켜 버린 학생과 다시 만나 강의의 해야 하는 현실이다. 대학 강의란 그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진리에 대한 접근 양식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와 강의에 임하는 학생 사이에 혼연일체가 되지 못하고, 그 분위기가 서먹서먹한 관계이면 더욱더 강의의 리듬도 깨지고 공염불만 팽배해진다.

같은 대학인들로서 학생들까지 교수에게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실체에 대한 지성인으로서의 실천적 행동을 요구하며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대학교수야말로 그 입장이나 위치가 요사이처럼 어려운 때도 없었을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제간의 인간관계도 변화된다는 것을 모를 바 아니지만 '60년대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와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비록 적

은 경험이지만 이 부분에서만은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의 경우보다는 더 심한 듯하다. 말하자면 집단행동에 있어서 동료친구들과의 소의 의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현실적으로 격리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선한다. 물론 그들이 개인적 주체로서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아닐 것이다. 대세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대세에 따른 순간적 영향은 최소한 남학생보다는 민감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무리 합리적인 논리로 교수가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이고 오직 집단행동의 리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엽적 경험을 하면서 교수들은 하나같이 실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접하게 됐던 것이다. 나는 그들이 목적에 대한 인식을 어찌 하더라도 방법이나 그 진행 과정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느꼈고, 또한 확실한 자기 태도 없이 휩쓸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실로 실망을 금치 못했다. 순간적 단상이지만 그때처럼 대학교수라는 직업에 회의해 본적이 없고 허탈감을 느껴 본 적이 없다.

知行一體나 이론과 실천의 파제가 지성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기는 하지만 직업인으로서 학문을 하는 교수의 자세가 이와 같은 상황윤리에서는 그 본래의 뜻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내심 처절하리 만치 쓸쓸하고 허전한 고뇌와 번민이 순간순간들이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대학교수의 삶의 태도라 본다.

그러나 대학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와 같은 모습은 대동소이할 뿐이지 어느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다 있을 것으로 전제한다면 실로 크나큰 사회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지 않고 신뢰와 의리가 넘치는 사회라면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정당성이 결여 되고 합법성이 없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다. 상호 존중되고, 힘과 힘의 대결로써 그 결과를 합법화시키지 않으며, 순리와 협상 그리고 민주화된 의식이 팽배해서 상호간의 입장이 존중되고 받아들여진다면 오늘과 같이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